

# 마필 외모 심사법

마필의 생김새는 경마와 생산에 있어 마필 개체의 능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, 경주마의 경우 스피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로의 종류 및 경주거리에 적합한 형태가 있다. 또한 경주능력을 결정짓는 마체 생김새의 특징은 세대를 거쳐 유전되므로 특정 혈통의 우수한 강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.

씨수마나 씨암마의 특징이 동등한 비율로 후손에게 유전되지만, 씨암마는 매년 1두씩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씨수마는 평균적으로 한해에 50두를 증부하기 때문에 씨암마보다 씨수마의 생김새가 훨씬 중요하다.

마필의 생김새에 대해 심사 시 고려할 사항은 전체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다. 잘생긴 마필은 첫인상이 좋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근육발달 정도가 양호할 것이다. 그러한 초기평가의 특징 중 하나가 외관(외모)이다. 마필 생김새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흡기 계통이다. 비록 형편없는 골격을 가진 마필이라 할지라도 아주 우수한 경주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.

일반적으로 생김새 좋은 말들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한다.

## 호흡기 계통

- ① **콧구멍** : 마체 크기에 상관없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주요한 경로이기 때문에 넓고 클수록 좋다.
- ② **턱** : 하악 아래의 크기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넓을수록 좋다. 바람직한 크기는 성인의 손이 턱밑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좋다.
- ③ **가슴** : 가슴의 크기는 폐의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넓을수록 좋다.

## 두부 및 몸통

- ① **머리** : 머리의 크기는 전체적인 마체의 크기에 대비하여 너무 작으면 안 된다. 가능한 넓고 평평한 앞이마를 가진 것이 좋다.
- ② **귀** : 귀는 마필의 자체방어 체계의 한 부분이며 적당한 사이즈로 전방을 향해 위치하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.
- ③ **눈** : 눈은 전방을 향해 위치하여 측면 관찰이 용이해야 한다.
- ④ **입** :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마필의 능력은 입안의 이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일렬로 고르게 배열된 것이 좋다. 이빨과 혀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관찰해야 한다.
- ⑤ **목** : 마필의 머리와 목은 방향과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다. 목의 길이는 마체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당해야 한다.
- ⑥ **어깨** : 어깨는 보폭의 확장정도 및 운동할 때 충격흡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. 어깨는 팔꿈치의 연결부위에서 등선마루까지 45° 각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. 가슴의 넓이는 어깨와 어깨 사이의 넓이로 측정되며 가능한 넓을수록 좋다.
- ⑦ **몸통** : 마체의 몸통은 좋은 근육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. 양쪽 어깨는 적당히 살이 붙어 있

어야 하고 너무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.

- ⑧ **등** : 등의 길이는 마필의 능력 발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. 짧은 등을 가진 마필은 일반적으로 경주 거리가 짧을 때 능력을 잘 발휘한다. 후구는 가능한 넓고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미세한 근육층을 이루어야 한다.

## 다리 계통

- ① **넓적다리** : 마필의 넓적다리는 추진력 확보 메카니즘의 한 부분으로서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.
- ② **앞다리** : 앞다리는 추진력과 운동 시 충격을 흡수한다. 양쪽 앞다리의 정상적인 움직임은 기본적인 골격의 일렬 배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. 앞다리는 어깨의 연결부위에서 아래로 곧바로 뻗어 있어야 좋다.
- ③ **무릎** : 무릎은 다리 골격 중 가장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. 무릎뼈의 일렬배열은 에너지변환에 있어 중요하므로 평평해야 하며 상하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
- ④ **관부** : 관부 부위의 뼈는 짧고 두꺼울수록 좋다. 어깨와의 연결 부분에서 볼 때 직선으로 무릎과 연결되어야 한다.
- ⑤ **구절** : 구절은 지나치게 사각이거나 원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종자골은 지나치게 돌출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부가 앞다리, 무릎, 그리고 환부와 일렬로 배열되어야 한다.
- ⑥ **발목** : 발목은 지나치게 길거나 각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. 상부에서 하부까지 균일한 둘레를 가져야 하고 환골류와 계골류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.
- ⑦ **발굽** : 발굽의 중심점과 어깨 끝에서 출발하는 직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좋다. 뒷굽은 지나치게 박스형이거나 작아서는 안 된다. 백색굽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마필을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.
- ⑧ **비절** : 비절은 뒷다리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부상 위험이 높다. 마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모양과 각도로 인해 쉽게 손상된다. 비절끝은 꼬리로부터 직선방향에 위치해야 한다.
- ⑨ **뒷다리의 관부** : 뒷다리의 관부는 두꺼워야 하고 비절 둘레에 비절후종이 없어야 하며 꼬리 부위에서 직선방향으로 내려와 구절 부위까지 연결되어야 한다. 뒷다리의 구절과 발목은 앞다리와 동일한 형태를 이루어야 한다.